

‘제18회 오월어머니상’ 박성언·(주)훈프로 선정

민주주의 헌신·오월 정신 계승 등 공로

오는 26일 오월어머니집서 시상식 개최

‘제18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박성언(44) 어린이음악창고 대표가, 단체상에는 영상 제작 업체 ㈜훈프로(대표 이조훈)가 각각 선정됐다.

19일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에 따르면 올해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개인 1명과 단체 1곳을 선정, 오는 26일 오후 2시 오월어머니집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오월어머니상은 1980년 5월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오월 정신 계승에 공로가 인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개인상 수상자인 박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음악 감독 및 작곡 활동으로 오월 정신 선양에 앞장서 왔으며, 오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젊은 예술가의 열정으로 5·18의 예술적 가치를 승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올해 4월 5·18을 누구나 쉽게 알리고 부를 수 있도록 오월어머니 14명과 광주의 여성 뮤지션 14명이 함께 만들고 부른 ‘오월, 기다림’ 노래를 작사·작곡했으며, 오월어머니들이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특히 올해 5월 한 달간 오월상설음악회 ‘너의



박성언



이조훈

오월을 들려줘’ 총감독을 맡으며 민주·평화·공동체 정신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단체상을 받은 ㈜훈프로 업체는 영화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중 1980년 5월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송암동은 많은 이들이 5·18의 아픔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광주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의 강제노역 참상을 고발하는 ‘서산개척단(2018)’과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 영상기록 유실을 지적하는 ‘광주 비디오키아라진 4시간(2020)’ 등 국가 폭력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해 왔다.

아울러 ㈜훈프로는 영상물 기획 및 제작으로 5·18진상에 대해 널리 알리고 그 가치와 의미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광주 민간인 학살과 책임자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오월어머니집 관계자는 “오월어머니상은 해마다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수상해 왔다”면서 “그들의 노고와 공로를 위로하고 나아가 오월 정신의 참뜻을 함께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성학기자

동신대 국제교육원 양혜열씨 외국인 범죄예방 공로 감사장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담당 양혜열(45·사진)씨가 외국인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9일 동신대에 따르면 양씨에 대한 감사장 시상식은 최근 이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참여 현장 간담회’에서 진행됐다.

동신대는 나주경찰서와 함께 유학생들의 주거 안전과 방범을 위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3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유학생 30명이 단원으로 발탁돼 활동하고 있다.

양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한 유학생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목포 유달동, ‘희망안심지킴 꾸러미’ 지원

목포시 유달동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안심지킴 꾸러미 지원사업과 고독사 예방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19일 목포시 유달동에 따르면 최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희망안심지킴 꾸러미와 밀반찬을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7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민희 유달동장은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길 잃은 8세 여아, 베테랑 해경 덕분에 무사 귀가

김치형 목포 북항파출소 경사, 순찰 중 발견 안전사고 예방

목포해양경찰이 순찰 중 길을 잃은 어린이를 발견,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항파출소 김치형(37) 경사는 최근 목포 북항 3부두를 순찰하던 중 선착장 인근 정박 여객선 위에서 A(8)양을 발견했다.

당시 A양은 여객선 위에서 혼자 난간을 붙잡고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어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또한 당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씨에 갑판 온도가 40도에 이르고 있어 온열 질환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경사는 재빨리 A양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즉각 북항파출소로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북항파출소 해양경찰관들이 신속 출동해 A양의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A양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보호했다.

A양은 집 인근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집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북항 선착장까지 길을 잃고 혼자徘徊하다가 김 경사의 눈에 띄는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가족은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무사히 딸 아이를 찾아줘 정말 감사하다”며 북항파출소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

김 경사는 2014년 해양경찰에 입문한 후 지능범죄수사계, 형사계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10년차 베테랑 경찰관이다.

김 경사는 “A양을 발견했을 때 아들과 또래



라 더 마음이 갔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한국생명사랑재단-광주 북구 ‘생명나눔’ 협약

(사)한국생명사랑재단(이사장 김동화)은 19일 광주 북구청(구청장 문인)과 생명나눔 장기기증 확산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생명나눔 장기기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화 이사장과 문인 구청장, 최기영 북구의원, 김영순 북구의원, 김은숙 보건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기적인 생명나

눔(장기기증) 캠페인 공동 실시, 지역사회 생명나눔(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청사 내외 관계 기관에 생명나눔 홍보물 비치 등을 추진한다.

문인 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매일 매일 애타게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장기부전 환우들에 큰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안재영기자



전남농기원-중원난성농업과학원 ‘기술 교류’ 협약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9일 “중국 윈난성에서 윈난성농업과학원과 농업기술 교류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력 교류와 국제학술회의, 워크숍 등 다양한 교류사업 ▲농업과학원 구, 농업교육, 전시 및 홍보 분야 협력 ▲커피, 차(茶), 원예, 식량작물, 식품 가공 등 농업연구 분야 기술 교류 등이다.

윈난성은 중국의 농업 분야 핵심 지역으로 커피와 차(茶) 주요 생산지다. 특히 중국 커피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며 차 재배 면적도 중국 최대 규모인 343만ha에 달한다. 윈난성농업과학원은 1912년 설립된 농업 연구기관이다. 차와 커피를 비롯한 윈난성의 다양한 농업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김행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협약을 통해 상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전남의 차·커피 산업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22년 커피를 지역특화 집중 육성작목으로 선정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기반 구축과 재배·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전주석 운천농장 대표, 담양읍에 ‘향미쌀’ 기탁

담양읍 윤교리 소재 운천농장 전주석(64) 대표가 최근 어려운 이웃에게 쌀달라며 담양읍사무소에 향미(香米)쌀 20kg 15포(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전 대표는 “사람의 쌀로 이웃들이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화 담양읍장은 “힘든 경기

에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기탁자가 지역에 있어 감사하다”며 “기탁된 쌀은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장을 지낸 전 대표는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쌀을 브랜드화(더담미)해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고품질 쌀 재배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여수시노인복지관 연계해 지역 내 집수리가 필요한 독거노인 세대에 사랑의 집수리 서비스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수리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세대를 사전 방문해 어르신 욕구를 파악한 뒤 지붕 처마 작업 및 새시 공사, 페인트 도색, 도배·장판, 전기 공사 등을 진행했다.

박수성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본부장은 “집수리 가시급한 세대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장흥경찰, 청소년 뱃페이커 범죄 예방 캠페인

장흥경찰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AI기술 등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 허위영상물(뱃페이커)을 제작·배포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관련 범죄에 경각심을 갖도록 ‘청소년 뱃페이커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흥경찰서는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흥군청 노인아동과와 장흥여성일상지킴의 협조를 얻어 향원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등굣길에 뱃페이커 범죄 예방 전 단지를 배부하고 뱃페이커 근절 구호를 외치는 등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장흥=노홍록기자